제1793호 2023년 9월 17일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뿌리를 찾아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렘 6:16)

우리의 신앙은 어쩌다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처음은 그 뿌리와 맞닿아 있고 그 뿌리를 알아야 나의 나됨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내가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아 갈릴리홀 앞에서 역사 전시회가 펼쳐지고 있고, 충현디지털 역사관을 통해 충현의 역사자료들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충현의 신앙의 뿌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

일시: 오늘, 9월 17일(주일) 14:00
대상: 23년 6월~8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장소: 베다니홀

권사회 전체 영성훈련 및 월례회

일시: 9월 19일(화) 10:20
장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 금주 기도원 집회는 쉽니다.

외선부 가을 수련회

주제: 열방의 목전에서(사 52:10)
일시: 9월 28일(목)~29일(금)
장소: 충현 기도원

저출생 극복 서명운동

지역교회가 종교시설에서 평일에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한국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서명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방법: 교구별로 배포되는 지류 서명지 또는 QR

교회 본당 경관조명 점등식

일시: 9월 22일(금) 오후 9시(금요집회후) 장소: 본당 앞

경관조명 사진 컨테스트

기간: 9월 22일(금) ~ 10월 1일(주일)
조건 : 핸드폰으로 사람과 경관조명이 잘 드러난 사진, 1인 1개 사진만 출품
시상 :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선정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함)
제출방법 : 네이버폼 링크 접속 후 제출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

READING JESUS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피터 릴백 총장 조나단 깁슨 교수 한규삼 목사 권성수 교수 강명옥 박사 권혁민 교수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성경통독 "리딩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충현교회 성경통독 모델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였고, 한국교회에 교단을 초월하여 성경통독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에 확장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를 확인하는 자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성경통독으로 향하는 자리인 리딩지저스 컨퍼런스2023에 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3. 10. 17. (화) 09:30 - 15:30** 장소 **충현교회**

1부 사회 권혁민 교수 (리딩지저스 발행인)

오프닝
권혁민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사역의 의미와 가치
피터 릴백 총장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조나단 깁슨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사도행전의 끝맺음(행 28:30-31)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성
한규삼 담임목사 (충현교회)

성경과 성령: 주님과 밀착
권성수 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2부 사회 김은수 목사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공동대표)

그리스도 중심 묵상과 기도
강명옥 박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소개와 현황
박동진 목사 (충현교회)

포럼
서울홍성교회 (서경철 담임목사)
강변교회 (이수환 담임목사)
대구삼덕교회 (강영룡 담임목사)

주최
충현교회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대상
충현교회 모든 성도

등록 및 신청 (점심제공)
온라인 : 홈페이지 및 QR코드 /
오프라인 : 각 교구 간사 또는 부서 담당 교역자

등록마감
10월 8일(주일)까지

문의
김승래 목사(010-5526-1324)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Copyright© 2023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생명제일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02-552-8200 발행인: 한규삼 편집인: 양효민 편집: 김상래

지난 주일(9월 10일) 설교 되새기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충현다움'

(누가복음 10:30-37)

우리 교회에서 이웃초청 음악회를 했던 지난 금요일 저녁, 한 기독교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어떻게 준비했는가?'였습니다. 여러 행사를 준비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주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미래를 향한 꿈이 나타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70주년의 역사적 의미'였습니다. 우리나라 부흥 역사에는 세 차례 큰 물결이 있었는데 첫 물결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평양 대부흥운동 등으로 이 땅에 교회가 뿌리 내리는 사건이었으며, 두 번째 물결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신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1970년대 경제부흥과 함께 생겨난 많은 교회들이 주류적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물결의 선두에 서 있었기에, 세 번째 물결을 타고 크게 부흥하여 많은 면에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 고유의 성품을 허락하셨습니다. 1998년 주간충현에서 당시 대학부 7학년이었던 한 형제가 표현했던 "충현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현다움을 우리 교회의 5대 목표와 연결해볼 때, 예배를 사모하며 변함없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참 감사한 충현다움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천국일꾼을 양성하자는 목표로 달려왔기에 우리 교회의 일꾼 속에도 멋진 충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충성심과 분별력, 지혜로움과 순결함, 순종과 지혜처럼 공존하기 어려운 성품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존합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목사님께서 북한선교에 힘쓰시던 사진, 오대양 육대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정신, 단기 선교사로 한 해에 3,000명 가까이 헌신했던 열정에 충현다움의 감동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충현다움의 모습을 뚜렷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웃 사랑에 있어서 충현다움을 갖추어 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예루살렘에 살던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도 직접 걸어봤지만 제법 체력이 소모되는 그 길에서, 유대인은 강도를 만나 죽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그의 앞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1절)" 제사장은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가장 앞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강도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마침'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유대인을 '피하여 지나갔을' 따름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에, 제사 직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제사장을 변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당시 사두개인들에 의하면 제사장은 부정을 타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의 논쟁을 살펴보며, 제사장처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보다 정결의 의무가 다소 가벼웠던 레위인도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3절)"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유대인들과 거리가 멀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그가 쉴 수 있는 곳까지 옮겨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화가 반 고흐는 '선한 사마리아인'라는 그림에서 강도당한 사람과 그를 옮기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묘사한 것과 대조적으로 강도 당한 유대인을 지나쳐버린 두 사람은 희미하게 묘사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데나리온의 실천

사마리아인은 여관에 도착하여 밤새 유대인을 돌보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기 전, 여관주인에게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강도당한 사람을 돌보아주기를 부탁하며 두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치 임금에 해당하는 두 데나리온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큰 문제 혹은 심각한 불편이 생기지 않기에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충현다움의 한 목표인 이웃사랑에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이 담겨있길 소망합니다. 이후의 우리의 삶과 행동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사마리아인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주의해서 살펴보면, 창문을 통하여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자신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참된 성도를 대표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눅 10:25)"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에는 한 율법교사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신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눅 10:27)"는 율법교사의 대답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눅 10:28)" 말씀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렘브란트가 후일에 동일한 장면을 다시 그린 판화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 끝에는 우리가 또 다른 도와야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으로 깨달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사랑의 충현다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심고 가꾸어야 할 이웃사랑의 충현다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현재 우리 교회의 장례사역에 이웃사랑과 관련한 중요한 충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상을 당하게 되었을 때의 마음은 강도당한 사람과 심정적인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교구에서는 그 분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감싸며, 헌신적으로 돌보기에 특별히 장례사역에 충현다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충현다움'이 계속하여 더 잘 간직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나아가 더 많은 사역에서 이웃사랑의 충현다움이 펼쳐지길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귀 기울여 들은 바를 잘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어, 그들도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선순환이야말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는 70주년을 허락하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 목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충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가 사모하는 선한 영향력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함으로, 이웃사랑을 통하여 충현다움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주간 충현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 Choonghyun Church-like

(Luke 10:30-37)

Rev. Kyu Sam Han

The last Friday evening when our church had the neighbor invitation concert, a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requested an interview with me throwing a question. The first question was 'How did you prepare for a variety of events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What I thought most important in preparing for various events was that owing to the grace piled up over grace and by God's being with us, the church becomes the one and reveals the dream for the future and I feel appreciated for God to have replied to us. The second question was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70th anniversary'. There have been three great waves in the history of the revival in Korea, and the first wave was the affair that missionaries came to Korea, and the church came to be rooted in this land by Pyongyang Great Revival, etc. The second revival was that God allowed through the church the new hope to this land that had become devastated due to the Korean War. The third wave was that many churches grew up as mainstream churches along with the economic revival in the 1970s. Our church, which was at the forefront of the second wave, greatly revived on the third wave and was established as a model church to other churches in many respects. Even though there was a hard and difficult time, God allowed our church its unique character through the time of refinement. This is the very 'Choonghyun Church-like' that was expressed in the Choonghyun Weekly, in 1988, by a brother, a seventh grader of the college community at that time. When we connect Choonghyun Church-like with the Five Goals of our church, the appearance of adoring the worship service and unchangingly offering the prepared worship service is a very grateful Choonghyun Church-like appearance. Because we have been running with the goal of fostering the Heavenly workers for a long time, the splendid appearance of Choonghyun Church-like is contained in our church workers. Characters like loyalty and discernment, wisdom and purity, obedience and wisdom which are difficult to co-exist exist together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e same is true of evangelism and missions. The photos of the senior reverend making efforts to the missionary work for North Korea, the spirit of emitting missionaries to Five Oceans and Six Continents, and the passion of sending around 3,000 dedicated short-term missionaries a year embrace the Choonghyun Church-like touching spirit. However, I have not found yet the Choonghyun Church-like in the love of neighbors clearly. Through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Jesus taught, I would like to seek through the words how to be equipped with the Choonghyun Church-like in the love of neighbors in the future.

Approached him

A Jew living in Jerusalem took a journey to Jericho. On the road that I walked on once in person, which a considerable amount of physical strength is needed to walk on, the Jew met robbers and reached almost dead. A priest, a Levite, and a Samaritan passed by in front of the fallen Jew. "Now by chance a priest was going down that road, and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v 31)" Since a priest was the person who had the responsibility for taking care of some others faster than anyone else, the Bible writes 'by chance' from the position of the person who was robbed. However, the priest just 'passed by' the Jew. A certain Bible scholar defends the priest by saying that he could not but pass by to officiate offerings because if a priest made himself unclean from touching the dead body, he could not perform the duties, but some other experts are making a counterargument that according to Sadducees, priests at that period did not get unclean. Examining the arguments between scholars, I thought Jesus rang the warning bell in order for us not to say an excuse 'I could not but do it' like the priest did. A Levite whose duty of purification was a little lighter than that of a priest also passed by the person who was robbed. "But a Samaritan, as he journeyed, came to where he was, and 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v 33)" In contrast to the priests and Levites, a Samaritan, who was rather distant from the Jews, went to the person who was robbed and bound up his wounds, took him to the place where he could rest, and took care of him. The painter Van Gogh in his painting 'the Good Samaritan' depicted the appearances of the robbed person and the Samaritan who carried him clearly in contrast to that he depicted two persons who passed by dimly. I think it embraces well Jesus' lesson about what sort of life we should live in order for us not to disappear shabbily into the obscurities of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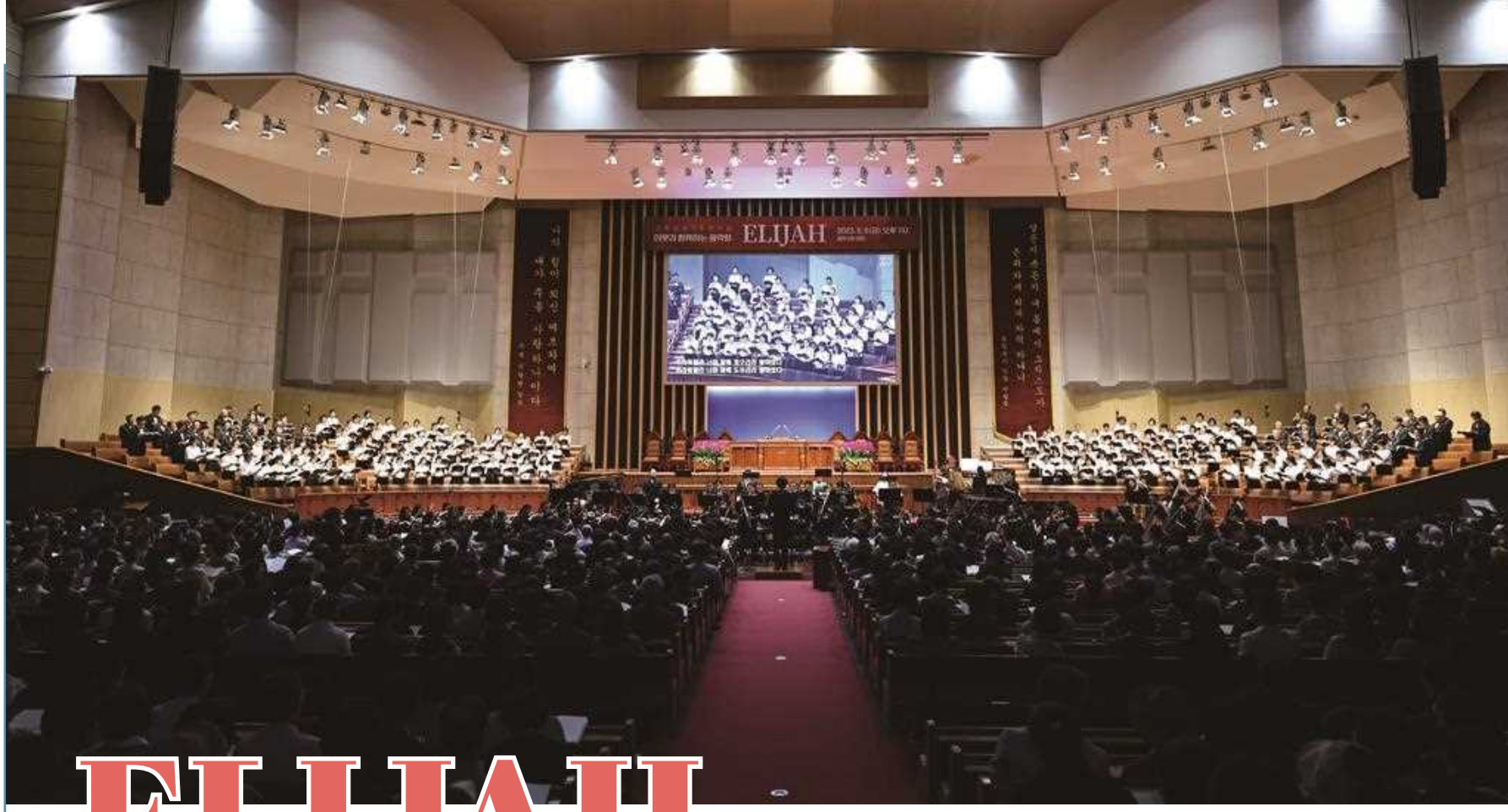
The practice of the two denarii

Arriving at the inn, the Samaritan not only took care of the Jew overnight but also the next morning before he left for the road paid two denarii to the innkeeper asking to take care of the robbed person till he came back. By paying two denarii equivalent to the wage for two days we are not likely to have big problems or serious inconvenience in our lives, therefore, we should practice the love of neighbors without feeling burdensome for having the Samaritan's merciful mind. I hope this spirit of Jesus is contained in the love of neighbors which is a goal of Choonghyun Church-like. I bless that our lives and actions after this will become like that of the Good Samaritan. Observing carefully the painting by Rembrandt, a painter, which depicts the scene in which the Samaritan arrives at the inn, we can find a person keeping an eye on this scene through a window. The person is the painter himself as well as represents a true believer who accepts the parable of Jesus seriously. "And behold, a lawyer stood up to put him to the test, saying,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Luke 10:25). In the background of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here was a question about the way of obtaining eternal life that was asked by a lawyer. After asking back to the lawyer who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Luke 10:27), Jesus replied,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Luke 10:28)”, and talked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n the later etching of the same scene by Rembrandt there is another person whom we should help at the end of sight of the person who is looking at the good Samaritan helping the robbed person. I hope that by realizing the lesson of Jesus by heart, you and I practice the love of neighbors.

Choonghyun Church-like of the love of neighbors

What is Choonghyun Church-like of the love of neighbors that we should plant and cultivate in our church in the future through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I think there is an important Choonghyun Church-like related to the love of neighbors in the current funeral ministry of our church. The heart of the person when he suddenly has bereaved a loved family has lots of similarities to that of the robbed person in terms of feelings. I think each parish of our church wholeheartedly embraces their feelings, devotedly taking care of them, therefore, Choonghyun Church-like is revealed well in the funeral ministry. I hope 'Choonghyun Church-like' which is like the good Samaritan will be continuously preserved better. Furthermore, I bless Choonghyun Church-like of the love of neighbors will be spreaded to more ministries. For this, we should not stay within just listening to the word but go forward by acting on it. It is because the lesson that one should act well on what one has listened to intently is the message of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he good circulation that our good behaviors have good influences on others, so they also do good works is the core of Jesus' teaching. 'Hold on to the covenant, and go into the world and neighbors' is the goal of our church that God who allowed the 70th anniversary has given to our church this year. We should become believers who can reveal what believers we are and show Choonghyun Church-like in the very place where we are living. It is because this is the way of good influence that Jesus taught us and that we long for.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in the field of life where we live with our neighbors, by bearing well the life of a divine calling with loving heart before God when we go forward achieving Choonghyun Church-like through the love of neighbors, we will be established as the very church that God is really pleased with and loves, and as the very believers.

영역·이율의



ELIJAH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음악회 – 엘리야

지난 9월 8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본당에서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음악회 - 엘리야> 가 진행되었습니다. 멘델스존의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는 '엘리야'는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곡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박영민 지휘자가 지휘를 맡았고, 사무엘윤(베이스바리톤), 국윤종(테너), 김샤론(소프라노), 임은경(메조소프라노)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하였으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충현교회 연합찬양대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교회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음악회'로 진행되어 지역의 많은 이웃들이 함께 하였고, 순전도 행사를 통해 초청받은 분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저녁 9시까지 진행된 음악회는 본당을 가득 채운 3천여명의 열기 속에서 2시간이 짧게 느껴질만큼 강렬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통해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라는 곡으로 모든 성도가 연합됨을 느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어떤 이에겐 위로가, 또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치자 되신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충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1부 박소윤

너무나도 은혜로운 음악회를 통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흥집회에 이어 <엘리야>음악회는 메마른 심령에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충현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되어 참여한 은혜롭고 감동적인 음악회였습니다. 7교구 이남숙 권사

엘리야 음악회를 준비하며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의 삶의 상황임을 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찬양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엘리야 때처럼 지금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과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10교구 차지영 권사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엘리야 음악회가 열렸다. 아름다운 성전이 이웃과 함께 가득 채워진 모습에 감동이 왔고 연합 찬양대의 우렁찬 찬양 소리와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성전에 울려 퍼질 때 또 한 번 감동과 전율이 온몸에 퍼졌다. 성경통독 덕분인지 이제는 친숙해진 엘리야를 주제로 한 오라토리아를 들으니 성경 말씀과 동시에 당시 상황이 더 생생하게 떠올라 두시간이 금방 지나갔던 것 같다. 큰 교회지만 익숙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우리 교회가 처음 보는 사람들로 가득한 낯선 풍경에 새로운 하루였다. 단순히 음악회를 즐기러 온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은혜받고 싶어 온 사람이나 각기 이 교회로 온 목적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셨음을 믿는다. 앞으로도 주님이 70년 동안 굳건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신혼가정부 도영실 집사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충현교회 연합찬양대 및 유명 솔리스트 네 분이 2시간 동안 잠깐의 휴식도 없이 만들어 내는 공연을 보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200여명의 찬양대원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렁차고 장엄한 소리를 듣고 감동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충현교회 본당 1, 2층을 가득 메운 3천 여명의 관객들이 2시간 동안 이석하지 않고 공연에 몰입한 장면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강남예술단과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만나 합동공연을 하기로 계획했을 때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9월 8일 공연을 마치면서 괜한 걱정의 시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며 훌륭하게 멋지게 공연을 이끌어준 출연진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공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강남구청 김부재

주간 충현

충현교회 교회설립 70주년 감사 예배

충현교회 70주년 설립 기념 행사는 교회의 70번째 생일인 설립 감사주일을 맞아서 예배함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감사예배는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충현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성석교회를 섬기신 김성윤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셨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자 주다산 교회 담임이신 권순웅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충현교회 출신으로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하신 성주진 목사님과 동서울 노회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박성은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고, 한국 교회 각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부산 동일교회 이창환 목사님, 뉴저지 초대교회 박찬섭 목사님,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총장이신 피터 릴백 총장님, 몰도바 현지인 사역자 스테판 목사님, A국 가정교회 목사님께서 영상 메시지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교회 설립과 교회 부흥에 현격한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회 설립자, 최초 예배자, 새성전 건축 부문, 자산 헌납 부문으로 4분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후 영동제일교회 노태진 원로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축하 행사와 전교인 단체사진 촬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모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현교회 모태신앙...한때 이 단어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었다. 퇴계로 5가에 위치해 있던 충현교회.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깜깜한 새벽에 눈길을 걸어 교회 가던 기억이 난다. 주일학교 마치고 교회 뒤편에 있던 공원에서 놀던 기억, 교회 입구에 항상 계셨던 뽑기 아저씨 때문에 주일성수로 엄청 고민했었던 기억 등등. 충현교회 설립70주년을 맞아 교회에서는 5대째 출석가정에게 인증패를 주는 시간이 있었다. 모태신앙도 부담스러운데 5대째 출석가정이라는 타이틀은 나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했다.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기에…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 흘러 내려오는 신앙의 역사를 알았고 충현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보며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선배 분들이 계셨기에 현재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숨 걸고 지키셨던 복음,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주어졌다. 신앙의 대수만큼 복음에 빚진 자가 되었다. 이 빚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며 누군가에게 이 사랑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충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된다. 윤인준 집사(12교구)

교회설립 7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여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충현교회를 사랑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많은 사명들과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충현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주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번 부흥회, 음악회, 순초청 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 하며 충현의 지체들이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장소에서든 최선을 다하여 각자 맡은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습 속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번행사를 다양한 모양으로 도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충현교회를 통해서 선한 계획하심이 온 충현의 지체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리딩지저스를 통해 말씀통독으로 견고해지고 다양한 성경공부를 통해 잘 양육받아 5대 목표를 잘 실천하며 주님의 비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감사가 넘치는 충현교회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강미 집사(6교구)

사진 황정연

충현동산 복구 공사 완공 감사 예배를 마치며

수심을 바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13개월 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 일부터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있는 채널을 예비하시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시멘트 파동, 장마, 한파 등 생각지 않은 복병들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파할 유가족들을 생각하여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며 피해를 입은 구역만을 하려고 했지만 공사구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1차, 2차 공사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를 막아서는 일부 주민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묵묵히 주님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동산을 새롭게 단장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니 힘이 솟았습니다. 느헤미야는 52일만에 성벽을 수축했지만 우리는 395일이라는 시간을 드려서 헌신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바라봅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동산을 단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8일 충현동산 복구공사 완공 감사예배를 담임목사님과 더불어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새롭게 단장된 쉼터에서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물 댄 동산 같은 충현 동산"으로 충현동산이 교회의 한 기둥과 동산 교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하기는 충현 동산이 쉼터로서 모든 사람이 와서 마음의 쉼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는 시설로 변화되고 이웃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광철 장로(충현동산 이사장)

주간 충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주일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뜨거운 열기와 기쁨이 아직도 저와 성도님들 가슴속에 생동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축하행사 및 3부 전교인 사진촬영 등의 순서가 진행될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2년 전 당회서기로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사역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로,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됨으로써 교구를 확대 개편하여 교구의 동역이 크게 강화되었고, 교회학교의 수련회, 성경학교 및 동역교회 전도 지원, 단기선교 사역 재개를 통해 교회의 사역이 점차 회복되고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금년에는 70주년 기념사업 준비 위원회에서 기획한 기념 사역들이 전 교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계획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진행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지난 3월 11일 학술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7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될수록 성도님들의 참여와 열기가 증폭되었으며,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성도님들의 영적 에너지가 결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전교인 부흥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및 70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표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앞으로 교회의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충현 공동체가 한규삼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역자와 중직자 및 온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 설립 100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에 힘입어 부족한 제가 지난 2년 동안 당회 서기직을 미력하나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었습니다. 특히 70년사 편찬 사역을 통해 충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경륜 앞에서는 감사함과 함께 경외함이 엄습하였습니다. 오직 무익한 종이며 할 일을 했을 따름이라고 고백합니다.

충현의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 한결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응원하여 주심에 두 손 모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 다른 사역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계속 충성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신임 당회서기로 부름 받은 양효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격려로 동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전 당회서기 이상석 장로

청년3부 여름수련회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청년3부 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3부 지체와 자녀들 약 270여명이 함께 집회를 통해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특강을 통해 서로의 삶을 고민하며 나누었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소중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면려회 많은 프로그램과 식사로 풍성한 수련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갈 힘을 얻고 갑니다!

강선영 집사

하루밖에 참석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첫날 부흥회만으로도 많은 갈급함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목터지게 기도회 인도해주신 목사님 감사해요.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 좋았고 연습하고 준비하느라 애썼을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일년 동안 두 번의 1박2일 기도원수련회 준비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한 우리 29대 면려회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감사해요! 물놀이 프로그램 스케일이 어마어마~^^ 다들 너무 애썼는데 이제 마음의 짐, 몸의 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되길 축복해요♡ 사랑해요 청년3부!

안유리 집사

내 삶에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을 되돌아보며 정말 청년때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면려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어용!

최예솔 집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라는걸 깨달게 되었네요. 부흥회와 특강까지 연결되는 은혜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면려회와 지도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유진 집사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씨름하며.. 나의 하나님께 모든것 내려놓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유병규 집사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오렌지스쿨

기간: 2023년 10월 7일 ~ 10월 28일 매주 토요일 / 4주 과정
시간: 오전 10:30 ~ 12:20
인원: 선착순 30명 (영유아기준)
교육비: 2만원 (교재 및 활동비, 간식비 포함)
신청 방법: 각 부서 구글 링크
문의: 영아부 - 고희란 권사 (010-9319-6904)
유아부 - 최숙희 권사 (010-8886-1401)
유치부 - 전금수 권사 (010-8248-1197)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고3 수험생을 위한 일대일 기도후원자 모집

기도 기간: 10월 1일(주) ~ 11월 16일(목) 수능시험일까지 **지원 방법**: 충현기도실 게시판에 기록
지원 마감: 9월 22일(금) 12시 **문 의**: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주 관**: 중보기도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8회 총회

일시: 2023년 9월 18일(월) ~ 22일(금) **장소**: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97	유한성	기본과정	김순덕
2	1600	김효정	기본과정	이성숙
3	1608	전우임	기본과정	손영민
4	1609	김 정	기본과정	허종문
5	1610	김미숙	기본과정	이정희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95	고주남	기본과정	조연이
2	1596	신정숙	기본과정	조연이
3	1604	송요승	기본과정	김희동
4	1605	박 영	기본과정	김희동
5	1606	최원일	기본과정	김연향
6	1607	황광옥	기본과정	김연향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94	이수아	청년2부	
2	1598	정안성	청년2부	
3	1599	김하은	청년2부	김성순
4	1602	정주현	청년1부	이병모

결혼

1. 박상준 군(박균범 집사·이영숙 집사의 장남, 5교구)과 이민지 양(이재순 씨·강애심 씨의 딸) / 9월 23일(토) 13:10 더베네치아 3층
2. 전경수 군(전상길 씨·정도연 타교집사의 아들, 신혼가정부)과 정윤지 양(정득식 타교장로·이정미 타교권사의 딸, 신혼가정부) / 9월 23일(토) 11:30 GS타워 아모리스홀
3. 황준필 군(황의주 씨·김정현 씨의 아들, 신혼가정부)과 김소정 양(김영운 씨·진미화 씨의 딸, 신혼가정부) / 9월 23일(토) 15:40 JK아트컨벤션 엠버루체홀

별세

1. 김기숙 씨(박태선 성도의 모친, 11교구) / 9일 별세, 11일 장례
2. 박정수 성도(이인성 은퇴권사의 남편, 10교구) / 9일 별세, 11일 장례
3. 이동진 서리집사(조미희 권사의 남편·이용수 성도의 부친, 8교구) / 9일 별세, 12일 장례
4. 이음전 집사(안형섭 성도의 아내·안재근 성도·안서윤 성도의 모친, 7교구) / 9일 별세, 12일 장례

금주 동역교회 파송(10교구 2팀)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강원 삼척 행복한우리교회	안성용 안수집사 외 8명	9월 22일(금)~24일(주)

예배 담당(9/20~9/24)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9/20	수요 I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까? (행 22:22-30) 임대영 목사	권순동	모현미
9/22	금요집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롬 5:17-21) 한규삼 담임목사	김상래	
9/24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성도가 받은 세례의 의미 (롬 6:3-9) 한규삼 담임목사	임대영 윤성복 전영재	임광신 이홍기 송한천
	주일찬양	작은 아이 (왕상 3:7-9) 김유석 목사	임진실	박병후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9/18~9/24)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8 (월)	권혁근/권재복	왕상 7:27-39	7교구
19 (화)	한규삼/현준봉	왕상 7:40-51	전교인
20 (수)	이성환/윤용현	왕상 8:1-11	전교인
21 (목)	김주한/변인식	왕상 8:12-21	11교구
22 (금)	위안복/김동철	왕상 8:22-32	4교구
23 (토)	임진실/임진실	왕상 8:33-43	전교인
24 (주)	박요셉/박요셉	왕상 8:44-53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❶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❷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기도원 집회는 쉽니다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 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시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 이상석 행정위원 | 오순도 소망부장 |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 이성섭 행정위원 | 이보신 인사위원 | 이상해 기도원부장 | 김성호 중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 이상복 교구위원장 | 지규성 선교위원장 | 김영주 전도위원 |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상임이사 | 백봉선 재정위원장 | 박재현 행정위원 |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장 | 송한천 5교구장 | 조윤준 세움위원장 | 최현구 인사위원 |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 변창대 당회부서기 | 허만선 찬양위원장 | 안연식 10교구장 |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당회서기 | 박원화 성례부장 | 이상배 기획위원장 | 박명근 8교구장 |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 박건일 4교구장 | 배종락 건축위원장 |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 홍금성 교육위원장 | 강태영 외선부장 |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 윤순규 1교구장 |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 박성철 11교구장 | 김열환 예배부장 | 김세종 선교위원 |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옥 예배위원 |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 송문식 안내부장 |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 신현욱 실로암대장 | 임병익 사랑부장 |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 강성은 선교위원회 | 김주한 11교구 | 이성환 12교구 |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 박동진 2교구 | 문진호 3교구 | 정석훈 8교구 |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 전영재 10교구 | 박영환 6교구 | 위안복 4교구 |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 신경철 초등부 | 임진실 사랑부 | 김승래 신혼가정부 |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 권순동 청년1부 | 박요셉 청년3부 |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 주은숙 6교구 | 이수경 평생대학원 | 홍명주 9교구 |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 최준호 소망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 이영미 유치부 | 박예령 영아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웽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지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신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

주간 충현